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1호 【루계 제26115호】 주체107(2018)년 8월 29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들로써야 페또-쁘린뜨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표식이 17일에 진행되었다.

출판사책임주필은 선군절과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힘이 약하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교훈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받들어 수십성상에 걸치는 선군령도의 나날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오늘날 조선의 불패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의 진문을 청년집에 즈음하여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2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가 17일 도이췰란드 공산당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산당 위원장 토르스텐 쇠비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 강연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로므니아준비위원회가 1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뜬쓰딴띤 로따루가 선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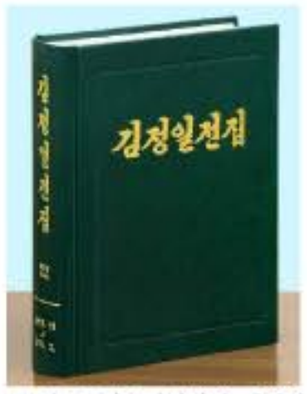
준비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방글라데슈준비위원회가 20일 다카시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엠디. 하룬 아르 라쉬드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모임,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전집》 제22권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한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김정일전집》 제22권을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2(1973)년 11월부터 주체63(1974)년 2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와 연설을 비롯한 61건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당을 강화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사상사업에서 주선을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사업하여야 한다》에서 김일성주의의 본질을 밝혀주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것은 우선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입니다.》

로작들에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유일적지도를 실현하며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사상이 명시되여있다.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당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전군에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수령님을 위하여 목숨바칠 각오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한다》 등의 로작들에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면서 《장편소설 〈1932년〉은 총서 〈불멸의 력사〉의 첫 성과작이다》, 《시대와 인간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 작품을 많이 써내야 한다》, 《영화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영화는 아담하고 내용이 깊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적민족교예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창작가들이 정책적인 대를 튼튼히 세워 당정책적견지에서 작품을 쓸데 대한 문제, 영화부문의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영화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민족교예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 등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이 제시되여있다.

로작 《도방송예술기동선동대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경제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사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에는 도방송예술기동선동대활동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당보가 대중의 선전자, 교양자, 조직자, 동원자로서의 전투적위력을 발휘할데 대한 사상이 서술되여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편직물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로동계급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할데 대한 문제,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 체육선수들이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명예를 생각하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로작들이 들어있다.

《김정일전집》 제22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주체쇠물로 첫 강판 생산,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 확립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벅찬 시기에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하는 새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석탄가스에 의한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를 리용하여 첫 강판을 생산하는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로 일떠세운 산소열법용광로와 산소전로, 대형산소분리기, 류동층가스발생로가 세차게 용을 쓰는 속에 용암처럼 뜨거운 쇠물과 질좋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고 석탄가스에 의한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육중한 강판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얼마후 강판들이 대형압연기들을 통과하더니 강판이 되여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북방의 철의 기지를 진감하며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격정과 흥분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올리였다.

진정 이것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오직 당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쓸탐음쳐온 김철로동계급의 성장속에서 터져나오는 신념의 메아리였다.

지난 기간 줄잡아도 몇년은 실히 걸린다던 방대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를 확립한것은 야금공업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 자랑찬 성과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대규모야금기지로 전변시켜주시고 나라의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의 주체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으며 김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철의 기지 김철을 결사관철의 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게 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많은 설비와 철강재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하였으며 공사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수만㎥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고 수천t의 강철구조물과 설비, 장치품들을 제작조립하여 산소열법용광로,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중기계들을 집중시켜 대형산소분리기건축공사를 앞당겨 끝내였으며 산소열법용광로 압축기장을 비롯한 대상공사를 맡아 제기일에 수행하였다. 또한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을 끝내고 시운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사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서로의 집체적지혜와 힘을 모아 대형산소분리기의 설비조립을 4개월동안에 끝내였으며 전반적인 판망들의 압시험을 보장하고 설비, 장치품들과 자동화요소들의 부족점을 퇴치하여 산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당지도소조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를 비롯한 주체화대상건설들이 결속된데 맞게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전개해나갔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현장들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산소열법용광로직장과 산소분리기분공장, 가스발생로직장, 강철2직장, 열간압연직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용해공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축전으로 빛내이자고 호소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전투현장에 표어, 전투속보판들을 제시하여 앙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련합기업소 일군들은 련관단위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는데 힘을 넣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철강재생산의 주체화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실현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주체철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산소열법용광로직장이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뚫고나가면서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용해시간을 단축하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였다. 그리하여 지난 1월 첫 쇠물을 뽑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만t에 달하는 주체쇠물을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산소량이자 곧 주체철생산량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산소분리기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전기를 절약하고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질좋은 산소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였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는 연료들의 배합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로운영의 기술적지표들을 철저히 보장하여 가스의 질과 실수률을 높이였으며 파쇄기와 콘베아를 비롯한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남비와 강철가열에 필요한 가스를 충분히 생산보장하였다.

강판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강철2직장과 열간압연직장이 위훈창조의 앞장에 섰다.

강철2직장에서는 산소전로조작과 남비가열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로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남비가열속도를 높이였다. 특히 용해공들은 주체쇠물을 용해하는데 맞게 로관리에서 기술적요구를 책임적으로 지키는 한편 새로운 로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체쇠물의 실수률을 높이고 강편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열간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많은 부속품들을 해결하면서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보수를 10일동안에 해제낀 기세로 수백대의 설비들을 보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철강재생산의 마지막공정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보수정비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내여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당지도소조에서는 철강재생산의 주체화를 힘있게 내밀면서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설비들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갔다.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확립기간 성, 중앙기관들과 함경북도안의 공장, 기업소, 전국의 많은 련관단위들에서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였다.

중앙과 함경북도의 예술인들과 방송원들, 직외강연강사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녀맹원들, 청소년학생들이 철의 기지 김철로 달려나와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을 아낌없이 진행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북소에 의한 철생산체계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철강재생산의 주체화가 완전무결하게 실현되게 되였으며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글 특파기자 리은남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삼지연군을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로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216사단 현장지휘부와 산하단위들에서 결의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모임이 25일부터 28일까지 216사단 현장지휘부와 산하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해당 단위들이 올해 점령하여야 할 전투목표들이 제시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쉬임없는 삼복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머나먼 북방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건설정형을 현지료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는데 숨결한 량심과 의리를 바쳐가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만복이 넘쳐나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삼지연군에서부터 온 나라에 펼쳐가시려는 숭고한 뜻과 철석의 의지를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기어이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충직한 아들딸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갈 불같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에서 진행된 결의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올해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들어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설계와 시공을 선행시키고 자재와 설비보장대책을 따라세우며 감독사업을 강화하여 삼지연군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으로 꾸릴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안에 공정별, 부문별, 단위별사회주의경쟁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온 건설장에 전투적기상이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성, 중앙기관려단의 돌격대원들도 결의모임을 열고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해나갈 굳은 맹세들을 토로하였다.

토론자들은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맡겨진 공사과제를 대상별, 공정별로 풀어 번쩍 나게 해제낄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련대, 대대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형성인대로 시공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며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갈 열정넘친 목소리들이 백두산영웅청년려단지휘부와 산하련대들에서도 울려나왔다.

토론자들은 삼지연군꾸리기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이 자력갱생대진군, 과학기술대진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영웅청년문화의 창조자들답게 건설장들에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618건설려단지휘부와 산하련대들에서 진행된 결의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로동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건설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922건설려단과 철길건설려단의 지휘부들과 련대들에서도 결의모임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건설자들과 기능공들의 금수를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며 공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혜산-삼지연철길을 표준철길로 완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 집마냥처럼 정성다해 꾸리며 대상공사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결의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여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듯이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식의 진동시효기 개발

남포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최근 남포항의 기술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우리 식의 진동시효기를 설계제작하고 그 도입을 위한 기술공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시기 자체의 힘으로 40t짐함기중기와 5t항만기중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제작하면서 이곳 기술자들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는 용접이음부에서의 잔류응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용접구조물들에서의 변형을 철저히 방지하고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것이였다. 그러자면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여야 하였다.

이곳 기술자들은 문헌연구를 깊이하는 과정에 전동기를 리용한 간단한 편심회전장치로 가공품을 진동시켜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진동시효기술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이곳 기술자들은 에네르기소비가 매우 적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등 여러모로 경제적효과성이 큰 진동시효기술을 현실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적극 노력하였다.

이들은 참고할만 한 견본도 없고 자료도 부족하였지만 과학자들과의 집체적토의를 강화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론도 활발히 벌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진동시효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간단한 장치를 도입하여 전동기속도조종을 원활하게 실현하는 문제, 진동힘을 간단한 방법으로 조절할수 있게 장치를 설계제작하는 문제, 진동수감을 위한 콤퓨터결합장치 제작문제, 수감신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진동시효기제작에서 나서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이어 이들은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자체로 만든 진동시효기를 각이한 구조물제작에 도입하는 경우 진동시효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용접구조물의 진동시효공정을 과학적으로 확립할수 있었다.

설비와 조작이 간단할뿐아니라 잔류응력제거률이 높으며 에네르기소비도 적은 진동시효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포항에서는 기중기제작공정에 필요한 설비들과 항만기중기제작에서 용접구조물의 변형을 최대로 줄여 기계적성능과 생산성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 식의 진동시효기가 개발되고 과학적인 진동시효공정이 확립된것은 용접구조물뿐아니라 주물, 단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기계부분품과 구조물제작에서 그 질과 생산성을 보다 높일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 불멸의 70성상

숭고한 미래사랑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력사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이고 행복의 터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나라의 천만아들딸들이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위대한 우리 공화국이 력사의 고고성을 터친 때로부터 어느덧 70년세월이 흘렀다.

우리 조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70년, 그 빛나는 행로를 더듬을수록 뜨거운 감회가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조국은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열정에 넘치고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강한것이던가.

그것은 사랑이였다. 미래에 대한 열렬하고도 불같은 사랑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에 끊임없이 울려퍼진 위대한 사랑의 메아리이다.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신조가 이 구호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이 세상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조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대들을 더 잘 가꾸고 돌보아주자!

이런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 금옥같은 명제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찬연한 리상을 탈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정녕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은 그 얼마이며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우리 새 세대들이 받아안은 사랑은 또 그 얼마였던가.

이 땅에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를 들을 때면 가지가지의 하많은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굽을 적시는 우리 인민이다.

미래를 사랑한다는것은 곧 아이들을 사랑한다는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만사람의 기억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나라에서 안겨준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주시려고 연풍고등중학교(당시)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내 60평생에 기쁜 날이 머칠 되지 않는데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요!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는 처음이요!

너무도 만족하시어 이 기쁜 날에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귀여운 학생들과 함께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어버이수령님.

사랑의 선물옷을 차려입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너무도 행복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참으로 그것은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화폭이였다.

수십년전 3월 어느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전국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줄 선물생산정형을 료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학용품명세에 지우개가 빠졌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자신께서 쓰시던 지우개를 보내주시면서 학생들에게 그와 꼭같은것을 만들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지우개는 연필로 쓴 글을 지우는 빨간색의 지우개와 만년필이나 원주필로 쓴 글을 지우는 파란색의 지우개였는데 량쪽에 있는 이 두 지우개를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그 개 고 질질히 교시하시였다.

원결해주는 지우개집에는 눈금이 새겨져있어 길이도 잴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보내준 견본대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어 류학생들에게 안겨줄 옷과 신발, 학용품, 당과류의 품종만 해도 아름찬데 지우개까지 그토록 관심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알고 받아안은 사랑보다 모르고 받아안은 사랑이 더 많은 우리 새 세대들이였다.

어느해 1월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멈추시고 새 솜옷을 입은 학생들이 눈싸움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시며 우리 아이들이 모두 《선남》, 《선녀》가 되였다고, 이런 기쁨을 느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가꾸어오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천만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이 땅에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감들이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민족이 흥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며 조국이 빛나게 된다고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길은 추억을 불러주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수십년전 12월 어느날 구월산기슭의 자그마한 산골마을을 지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명의 학생들이 징검다리를 건너 학교로 가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어린이들이 돌다리를 건너 학교에 다니기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고 하시며 어린 학생들이 아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 어떤 물질적재부보다도 더 귀중한 밑천인 인재,

인류문화는 사람들의 로동의 산물인 동시에 재능과 지식의 산물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한몫 단단히 하는 인재는 나라의 재부, 민족의 자랑으로서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다. 인재를 잘 발동하면 비할바없는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때문에 일군들은 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아끼주며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는데 무엇보다 품을 들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재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실력과 재능은 충실성의 전제이며 담보이다.

일군들부터가 능력이 있어야 인재들과의 사업을 원숙하게 잘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혁명사업에 바쳐지도록 일군들이 인재들을 어떻게 이끌어주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

일군의 본분 - 인재중시

파여부가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재능있는 인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가 못 키우는가 하는것은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능력있는 일군은 인재를 중시하며 그들의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주기마련이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수학이나 물리학을 뛰여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육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잘 키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와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의지의 발현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더없이 중시하시였기때문이다.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키워주는데 일군들의 주되는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

공정한 평가는 인재를 찾아내고 키워주는 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 하는것만큼 알아주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어야 그들이 자기도 혁명을 위하여 값있는 일을 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재능을 아끼고 귀중히 여겨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당의 믿음에 기술로써 충정으로 보답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귀중한 인재들을 아끼고 재능을 한껏 꽃피우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 충실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아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욕심이 많은 일군들은 재간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다닌다고 하시면서 일부 일군들이 제 집안에 있는 재간둥이까지 배척하려 하는 현상에 대하여 이것은 굴러들어온 복을 발길로 차버리는것과 같은것이라고 간곡하게 일깨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사람들의 재능과 실력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배척하는것은 혁명사업이야 어떻게 되건 자기 《전위》만 세우려는 리기주의적인 행위이며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해를 끼치는 위험한 행동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 예 하지만 실력이 있고 일을 하자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기마련이다. 또 자기의 실력을 등대고 자칫하면 교만해질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까다롭다느니, 말썽군이라느니 하면서 그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것과 같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할것이 아니라 품을 들여 일깨워주어야 하는것이 일군들의 기본임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일하도록 교양하시였으며 인재의 결함을 소화할줄 모르는 일군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될 자격이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시대인 오늘날 인재 한명은 백천을 대신한다.

인재들을 아끼고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에 진심을 바치는 일군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높은 충정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인재들에 의하여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될것이며 풍만한 결실이 마련될것이다.

나라가 흥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인재들을 찾아내고 적극 내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량 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경원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한편의 영화를 보시면서도

력사의 갈피에는 후대들을 위해 바친 위인들의 미덕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백두산절세위인들처럼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후대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들은 없었다.

후대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은 온 나라 곳곳의 학아소들에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송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들이며 이 송가를 위해 투쟁하는 복무자들이다.》

주체37(1948)년 3월 어느날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기록영화 《조선시보》 제4호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

자막소개에 이어 화면에는 청진제강소 제1호해탄로 조업식과 당시의 한 종양장이 소개되고 우량품종의 양종자를 받고 기뻐하는 농민들의 모습도 펼쳐졌다.

해방된 조국에서 새 삶을 한껏 누려가는 인민들의 보람찬 투쟁과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화면들이였다.

이윽고 화면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 3.8학아소(당시)가 소개되였다.

솔근길에 오른 녀성들에게서 아이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보육원들, 딸랭이와 인형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있는 어린이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맛있게 먹고있는 어린이들…

새 조국건설의 벅찬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이들의 학아소생활까지 소개한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일군도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펼쳐지는 화면들을 눈여겨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힘을 들여 학아소를 크게 꾸려놓았으나 아직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는 놀이감들을 비롯한 보육시설을 잘 갖추어주지 못하였다고, 다른데 좀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학아소에 필요한것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앞으로 모든 시, 군들에 이러한 학아소를 다 꾸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온 나라를 학아소땅으로 뒤덮을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일군들은 그이의 웅심깊은 사랑과 크나큰 뜻이 가슴에 흘러들어 커다란 감동에 휩싸였다.

영화는 포근한 침대에 누워 단잠을 설핏 자고난 귀여운 어린이들이 보육원을 따라 행복에 겨워 춤을 추는 장면에서 끝났다.

영사실에 불이 켜지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학아소를 꾸리는것은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니 좋고 생산이 올라가니 좋고 또한 어린이들을 더 잘 키울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고 하시며 우령우령한 음성으로 교시하시였다.

학아소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다시 영화를 찍어 소개하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을 뜨겁게 절감하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온 나라 방방곡곡에 꾸려진 학아소들에서 행복하게 자랄 어린이들과 우리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는 모습이 선히 안겨왔다.

백두밀림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던 때에 벌써 후대들을 계급의 꽃, 민족의 꽃, 인류의 꽃이라고 하시며 그 꽃을 잘 가꾸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라는것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은 이렇듯 숭고한 후대관과 새 세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 우리 혁명의 먼 앞날까지 책임지시며 그 피줄기를 이어갈 후비대들을 튼튼하게 키워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로운 화폭들이 날에날마다 펼쳐지고있는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다.

본사기자

새 세대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시는 나날에

제일 기쁜 실때

주체37(1948)년 5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승용차가 평안남도 대동군의 어느 한 저수지제방을 따라 달리고있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달려오는 애들을 보시고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며 감자기 멀리 뛰면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 뛸 때에는 미리 준비운동을 하고 달려야 하며 또 마지막에는 걸차속도를 늦추면서 호흡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하지만 애들은 그쯤한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으쓱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는 애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학교는 멀지 않느냐, 공부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느냐, 과외활동으로 어떤것들을 하느냐, 연예대활동도 하느냐고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한 일군이 시간이 많이 갔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류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나는 이렇게 어린이들속에 있을 때 제일 기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저마다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여 모두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사랑을 담아 당부하시였다.

아까울것이 없다

주체82(1993)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건확장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돌라보게 번모된 야영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야영소의 이번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꾸리는데 쓴 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마음먹고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는 소년단야영소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4만㎡나 되는 현대적인 큰 소년단야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할수 있게 되여 대단히 기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당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지어준 사랑의 집이다. 아마 사회주의가 파괴된 나라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훌륭한 야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준다는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다. 이것은 오직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기며 일군들은 장군님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류례없는 최고사령관명령

주체103(2014)년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어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믿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화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며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새로 조직하는 수산사업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표준이 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업소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설계와 시공단위도 정해주시였으며 자재와 설비보장, 어로공모실, 어선과 어구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수산사업소를 태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이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머나먼 바다가의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며 현지에서 내리신 최고사령관명령, 정녕 그것은 인민의 어버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서만이 생겨날수 있는 천년같은 후대사랑의 이야기인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자

찾을수록 증산예비는 늘어난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찾을수록 늘어나는것이 바로 예비이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시간당 수천㎥의 산소예비를 찾아내여 가스발생로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있는것을 놓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종전에 비해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면서 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안아온 이 성과는 조건이 어려울수록 자체의 힘과 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틈없이 생산예비를 찾아내고 기술을 혁신할 때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가스발생로운영에 필요한 산소보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비료생산에서 애를 먹고있었다. 하여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탕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은 일부 생산공정들에서 나오는 산소를 비료생산에 리용할 대담한 착상을 내놓았다.

당시 기업소의 물전해직장에서만도 비료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적지 않은 량의 산소가 나왔지만 여러가지 조건으로 생산에 효과있게 쓰지 못하고있었다. 다른 직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산소를 모두 합치면 현재 운영중에 있는 한대의 산소분리기에서 나오는 량과 거의 맞먹는 증산예비를 얻을수 있었다. 허나 그 길은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현행생산과 동시에 설비개조와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반하였다. 더우기 물전해과정에 생기는 산소를 리용하는 경우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수 없었다.

하지만 흥남로동계급은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헐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드디여 전투가 벌어졌고 그 앞장에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섰다. 그들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한편 설비들의 개조와 설치를 빠른 기간에 진행할수 있도록 떠밀어주었다. 특히 공업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물전해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합심하여 물전해과정에 나오는 산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처럼 복잡한 기술적문제들을 안고있는 기술공정설계를 단 하루동안에 끝낸것만 놓고도 비료생산에 필요한 산소문제를 자체로 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기세를 잘 알수 있다.

흔히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남다른 심리적체험을 겪게 된다. 하물며 련합기업소의 생산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기술공정설계를 맡은 공업기술연구소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마음은 실로 무거웠다. 점 하나, 선 하나 잘못 그어 사고라도 생기면 그 후과는 돌이킬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기술공정설계를 맡은 기술자들은 순간이나마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은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절절히 호소했다.

《만약 설비개조, 기술개조과정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지겠소.》

모두가 커다란 충격속에 실계전투에 착수하였다.

이처럼 일군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앞장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니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기술자들은 한주일은 걸려야 할 설계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고 보수분사업소와 물전해직장, 1합성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한달은 걸려야 할 방대한 공사를 불과 한주일동안에 완수하는 위훈을 떨치였다.

결코 한한대로를 걸으며 이룩한 성과가 아니였다.

시간당 수천㎥능력의 송풍기가 필요하면 못쓰게 된 송풍기들을 개조하여 걸린 문제를 풀었고 수백m의 관망공사와 기초공사 등의 전투때에는 누구나가 두몫, 세몫을 맡아 수행하였다.

전투과정에는 위험을 동반하는 긴급한 순간도 있었다.

설비련동시험을 진행할 때였다. 뜻밖에 전동기에서 불꽃이 튕기면서 송풍기출구관에 불이 달리는 위험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순간의 지체가 초래할 후과는 엄청났다.

바로 그때 부기사장 리호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몸의 위험을 먼저 생각한것이 아니라 주체비료생산의 동음을 지키기 위한 길에 주저없이 나섰다. 얼마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끝없는 기쁨과 긍지가 한껏 어리였다.

그것은 정녕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맡겨준 주체비료생산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가려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만이 맛볼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하기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내달릴 불같은 열정을 안고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을 보수정비하며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김 국 철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선행공정인 고치걸면제거공정과 선별공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산공정에 흐름선체계가 도입되여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생산공정에서는 원료카공능력을 훨씬 높이고 걸면제거과정에 버리던 찌끼솜을 전부 회수리용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두해전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많은 로력과 전기를 절약하는데 중심을 두고 생산공정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갔다.

일군들은 먼저 고치걸면제거기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지난 시기 이 설비들은 전력소비가 많고 고치걸면제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버리는 등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었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설비의 생산능력이 낮아 고치가 많이 들어올 때면 추가적인 로력이 요구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명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대를 이어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종전보다 성능이 좋은 고치걸면제거기를 개발할것을 결의하고 그 제작에 달라붙었다.

3대혁명소조원들과 공무직장의 기능공들도 고치걸면제거실수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수십차례에 걸치는 시험을 진행하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련관단위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강화해나갔다. 하여 국내에서 연구한 방조직을 리용하여 실수률을 최대한 높이고 고치걸면제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전부 회수리용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고치걸면제거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조사기들에 필요한 질좋은 원료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장에서는 고치걸면제거기의 생산능력이 올라간데 맞게 올해에 들어와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고치걸면제거공정과 선별공정에 자동흐름선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또다시 벌어졌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고 공무기지의 역할을 높여 짧은 기간에 콘베아를 성과적으로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있던 선별기들이 모두 제거되고 콘베아에 의한 선별기가 도입되였으며 수평, 경사로 된 어러대의 수송콘베아들이 놓인 결과 많은 로력과 전기가 절약되였다.

뿐만아니라 진동체, 습식제진장치 등 자체로 연구하고 개발한 갖가지 기구와 장치들이 도입되여 생산공정의 면모가 일신되고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과학기술을 생산장성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전 혜 영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

은률광산에서

은률광산의 연유공급소 종업원들이 폐유와 지방원료를 가지고 적지 않은 량의 그리스와 대용연유를 얻어내여 쇠돌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하다면 연유공급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자그마한 단위에서 이처럼 훌륭한 일을 찾아하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쇠돌생산의 동음 우렁찬 채광장을 바라보며 못박힌듯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광산의 연유공급소 소장 김길남동무였다. 그의 뇌리에서는 바로 몇시간전에 한 종업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줄 몰랐다. 어느 한 단위에서 물고기가공과정에 나오는 기름을 리용하여 그리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바다를 끼고있는 광산에서도 그런 원료는 얼마든지 얻을수 있지 않는가.)

다음날 그는 종업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그때 종업원들모두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대담하게 해볼만한 일감이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연유공급소의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그리스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개척하며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였다.

소장과 종업원들은 밤을 밝혀가며 화학과 기계공학분야의 자료들을 연구하였고 때로는 필요한 기술자료를 얻기 위해 폭우속의 밤길도 웃으며 나섰다. 이와 함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설비제작전투도 힘있게 내밀었다.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그들을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었다.

그때 종업원들모두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대담하게 해볼만한 일감이라고 하면서 하나같이 지지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연유공급소의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그리스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창조의 길에 들어섰다.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개척하며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이였다.

소장과 종업원들은 밤을 밝혀가며 화학과 기계공학분야의 자료들을 연구하였고 때로는 필요한 기술자료를 얻기 위해 폭우속의 밤길도 웃으며 나섰다. 이와 함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설비제작전투도 힘있게 내밀었다.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그들을 내세워주고 떠밀어주었다.

모두가 이들처럼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갈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으로 들끓고있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는 더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리용

창성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에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창성군안의 지방공업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식료공장, 직물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는 가운데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갖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되고있다.

군안의 일군들은 창성군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이 군안의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지방원료리용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실천하여 군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보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창성식료공장에서 사탕무우에 의한 물엿생산에 성공하여 전체 당원료를 자체로 보장하면서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고있다. 창성직물공장에서는 천생산과 담요, 이불생산을 늘이고있으며 창성식료가공공장에서는 공우유와 공산유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군내 락아소, 유치원, 학교들에 보내주고있다.

창성종이공장과 창성카구공장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여러 설비와 기공구들을 새로 창안제작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여가고있다.

군내주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다량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여러 공장들에서 새 제품개발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기술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맞이 맞이하려는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열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설비제작사업에 힘을 돋고있다.
—개천지구한풍련합기업소 탐사설비부속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강냉이가공기지건설 기본적으로 결속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백송종합식료공장에 일떠서는 강냉이가공기지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였다.

수천t능력의 강냉이가공기지에 차려놓은 설비들은 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다. 가공기지의 능력에 맞게 원료를 저장할수 있는 창고도 건설되고 여러개의 위생통과실도 꾸려졌다.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강냉이가공기지가 일떠섬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백송종합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강냉이가공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더 빨리 가닿게 할 불타는 일념안고 가공기지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최단기일안에 결속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들은 가공기지와 원료창고를 새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설비제작전투를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종업원들은 종전의 건물을 짧은 기일안에 들어낸데 이어 가공기지와 원료창고골조 및 지붕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맞게 일군들은 전투현장에 좌지를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풀어나갔다. 특히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기 위해 만짐을 지고 떠고 또 뛰였다. 그리하여 가공기지, 원료창고에 대한 골조와 지붕공사가 완료되였다.

그 기세로 종업원들은 내외부미장작업에 진입하여 일자리를 폭폭 내였다.

한편 공장에서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설비제작전투를 립체적으로 벌리였다.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기 식이 제일이라는 관점밑에 자력자강으로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기술자, 로동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안고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나갔다. 이 나날 기술자, 로동자들은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던 강냉이점질벗기는기계설비를 해당 단위와의 창조적협조밑에 훌륭하게 완성하였다. 또한 공기수송계통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도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여 생산공정에 대한 현동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

강냉이가공기지건설에는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국과 그 아래단위인 지방공업설계연구소 일군들과 설계가들의 남모르는 노력도 깃들어있다.

백송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더욱 분발하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사리원포도술공장현대화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높이 사리원포도술공장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지난 4월초부터 힘있게 벌어진 현대화공사는 지금 총공사량의 95%계선에 이르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사리원포도술공장이 현대화되면 포도술과 단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음료들과 식료품들을 생산할수 있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리원포도술공장현대화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공장현대화를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리원포도술공장개건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도당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가 현대화공사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도당일군들은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쳐치며 앞장에서 건설자들을 이끌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를 최단기간안에 끝내기 위한 전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도급기관 일군들과 시안의 건설자들의 창조적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현대화공사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방대한 기초굴착공사와 수백㎥의 토방처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낌으로써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기본생산건물개건공사장에서 세차게 타번졌다.

2천여㎥에 달하는 벽체미장을 진행하여야 하는 방대한 작업과제가 제기되였지만 사리원시안의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사리원시주택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다.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사리원시당위원회의 일군들도 공사장에 나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여러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맡은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사리원포도술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모든 공정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비하는데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갔다.

설비제작을 맡은 사리원보이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각종 발효항크들의 조립을 끝내고 많은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였다.

사리원포도술공장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장으로 꾸릴 불타는 열의밑에 총돌격전을 힘있게 밀려가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장에서는 날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다리들을 번듯하게 개건

안변군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각지에서 기적과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는 속에 안변군에서도 국토관리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에서는 때화다리, 천삼다리, 송산다리를 비롯한 5개의 다리들을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게 개건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고 물건거래들의 운행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군에서 개건한 다리들은 중량화물자동차들과 사람들이 많이 리용하는 도로구간에 위치하고있다.

지난 5월초 도당위원회에서는 이 5개의 다리들을 대담하게 들어내고 번듯하게 개건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에 따라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과 안변군의 해당 부문 일군들로 강력한 공사지휘부가 조직되고 개건계획이 빈틈없이 세워졌다.

도의 일군들은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필요한 자재를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다그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공사지휘부일군들은 다리개건을 위한 작전을 통이 크게 하고 군안의 건설력량을 총집중하여 립체전, 전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본격적인 개건공사에 앞서 매 다리구간가까이에 우회도로를 잘 만들어주어 물건거래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면서 공사를 내밀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현장을 다그앉은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치고 자재보장대책을 실속있게 세워나갔다.

공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우리가 개건하는 다리들은 중요대상건설장과 잇닿아있다.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더 많은 물동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수송하는데 이바지하자.

이런 하나의 지향을 안고 군안의 인민들모두가 공사장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나갔다.

공사에 동원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난관을 박차고 부족되는 자재를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해결하였다. 그리고 앞선 시공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였다. 군안의 다리개건공사장들에서는 이미 있던 구조물들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종전보다 더 견고하면서도 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된 새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진행되였다.

결과 방대한 량의 다리개건공사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질적으로 끝날수 있었다. 지금 개건된 다리들로는 많은 물건거래들이 쉬임없이 달리고있으며 오가는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 금 성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각지 청년학생들과 함께 청년절을 경축

각지 청년학생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가는 끝없는 자부심을 안고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28일 청년학생들과 함께 청년절을 경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평양교원대학,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나가 명절을 맞는 청년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박광호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로두철동지, 최휘동지, 박태덕동지, 조연준동지, 김능오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단천제련소, 김일성종합대학,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농업연구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등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서 청년학생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생산현장 등을 돌아본 다음 그들은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과 비상한 창조적열정을 안고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높이 증산돌격운동과 청단돌파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모범적인 청년학생들의 투쟁성과를 고무해주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청년학생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체육유희오락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주체의 청년강국의 주인공된 청년전위들의 한없는 긍지와 영예, 기쁨과 행복을 담은 공연종목들과 집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과시하는 축구, 바줄당기기 등의 경기들은 명절의 하루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시어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청년절을 해마다 뜻깊게 경축하는 끝없는 행복이 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어리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총정다해 받들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청년학생들의 드높은 열정으로 하여 명절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각지 청년학생들은 당과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8일에 진행되였다.

청년중앙회관 무도회장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필승의 신심과 비상한 열정을 안고 증산돌격운동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총진군길에서 뜻깊은 청년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기쁨이 차고넘치였다.

《청년절원무곡》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며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춤불결을 일으켜나갔다.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의 양양한 앞날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치고있는 청년전위들의 긍지와 자부심의 분출인양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청춘의 자랑》 등의 노래가 련이어 울려였다.

《인민의 환희》, 《뵙고싶었습니다》를 비롯한 노래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에 겨워 춤불동을 이어갔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답게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청년학생들의 드높은 의지를 담은 《청춘송가》, 《맡겨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와 함께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혁명적기상을 보여준 무도회는 노래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끝났다.

이날 각 도 소재지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웃음에서 찾는 보람과 긍지

강계시 인풍원 일군들과 봉사자들

강계시 인풍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일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봉사활동을 친절히 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기 초소, 자기 일터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느날이였다.

시당위원회에서 조직한 모임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리향숙지배인은 인풍원주변에 꾸려놓은 휴식터와 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배인에게는 지난 기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나날들이 되새겨졌다.

지배인은 봉사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신임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인민성, 친절성, 문화성,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주변을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설비와 비품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나무와 꽃관목, 잔디를 심고 관리하자니 힘에 부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과 꽃관목들을 마련하였다.

그의 말없는 이신작칙은 종업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종업원들은 손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주변정치에 어울리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구입하기 위해 수배리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인풍원주변에 은행나무, 오동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와 꽃관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수천㎡의 잔디밭이 조성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인풍원주변은 나날이 변모되였다.

그럴수록 이들은 자체로 양묘장을 꾸리고 비타민나무, 단나무, 두충나무, 참대비드나무 등 경제적가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자래우면서 롱구장과 배구장, 그네터, 씨름터를 비롯한 대중체육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대다수가 녀성종업원들인데다가 이동봉사활동을 하면서 대중체육장소들을 꾸리자니 헐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인은 밤잠을 잊고 뛰여다녔으며 종업원들은 롱구장과 배구장, 씨름터, 그네터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나갔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노력한 보람으로 인풍원주변이 원림화되고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이 생겨났다.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계시에 훌륭히 일떠선 종합적인 봉사기지의 이름을 《인풍원》이라고 부를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인풍원을 보다 훌륭히 꾸리며 봉사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나섰다.

시원하게 리발과 목욕을 하고난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이 휴식터의 나무그늘아래서 땀을 들이며 우리 인풍원이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려보이고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체육열풍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남다른 긍지를 느끼군 하였다.

자기 일터를 더욱 번듯하게 꾸려놓고 봉사활동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일본새에서 우리는 이런 대답을 찾게 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안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심장을 불태울 때 어디서나 훌륭한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특파기자 김 순 흥

교육자의 영예와 긍지 드높이

회령시 대덕고급중학교의 교원들은 학생들을 부강조국건설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다.

학교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모든 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훌륭히 자라나도록 하고있다.

이곳 교원들은 거목을 자래우는 뿌리가 된 심정으로 교육사업에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특히 모든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는 교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새 교수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하면서 학생들을 주체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인재후비들로 키우는데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가고있다.

이 학교의 교원들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정다운 부름과 더불어 직업적혁명가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박 희 옥

우리 나라 김국향선수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경기에서 우리 나라의 김국향선수가 제1위를 쟁취하였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안고 27일 녀자력기 75kg이상급경기에 출전한 김국향선수는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순간채기와 받아인기, 추기 등 모든 동작들을 정확히 수행하였다.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26kg을, 추켜올리기에서 165kg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91kg의 성적으로 영예의 우승자가 되였다.

한편 둥근형활쏘기 혼성단체경기에서 박영린, 강은주선수들이 2위를 하였다.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지역간 준결승경기소식

우리 나라의 4.25팀 결승경기 진출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지역간 준결승 우리 나라의 4.25팀과 싱가포르의 홈 유나이티드팀사이의 2차경기가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4.25팀은 21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홈 유나이티드팀과의 1차경기에서 2:0으로 이기고 이번 2차경기에 출전하였다.

시작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고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던 우리 나라의 4.25팀은 경기시간 24분경 첫 득점을 한데 이어 련속 8개의 골을 성공시켰다.

경기는 4.25팀이 홈 유나이티드팀을 9: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결국 우리 나라의 4.25팀은 지역간 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중국건축물사진전시회 개막

중국건축물사진전시회가 28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심영학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건축가, 건설기술자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건축학회대표단,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이번 전시회가 두 나라 건축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건축창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중국인민들의 민족적전통과 지향이 담겨져있는 건축물, 세계건축발전추세에 맞게 다기능화되고 종합적인 사명을 수행할수 있는 건축물들을 비롯하여 중국의 건축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중국건축물사진전시회는 30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박구명 기후조선초중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2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우리도 간석지건설자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녀맹원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안석간석지건설장에서는 녀성들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장정들 못지 않게 걸싸게 일을 해제끼는 솜씨도 그렇지만 성의있는 지원사업으로 건설장에 웃음꽃을 피워가는데서 그 누가 이들을 당하랴.

그들이 바로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녀맹원들이다. 조국의 대지를 뚫혀가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간석지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쁨과 함께 노래도 안겨주는 이런 미더운 녀성들이 있어 공사장은 더더욱 끓어번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전세대 녀성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에도 그러했지만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올해의 보람찬 투쟁속에서 이곳 녀맹원들이 거둔 훌륭한 성과들은 뜨거운 애국심이 낳은 것이였다.

그럴수록 녀맹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전세대 녀맹원들의 투쟁기풍을 빛나게 이어가려는 의지가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간석지건설의 한쪽 전선을 우리 녀성들이 맡아나서자, 리경순동무를 비롯한 녀맹일군들은 이런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그리고 녀맹원들이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 순절한 량심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도록 앞장에서 이끌었다.

녀맹원들도 조국의 대지를 뚫혀나가는 애국사업에 자신의 적은 힘이라도 이바지할 마음안고 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섰다.

그들은 나라의 큰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묵묵히 바치였다. 내리쪼이는 뙤약볕으로 하여 땀이 비오듯 흐르는 무더위속에서도,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속에서도 녀맹원들은 건설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면서 날마다를 제지르며 뻗어가는 간석지제방에 애국의 마음을 묻어나갔다.

투쟁속에 벌어지는 생활일수록 아름답고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일수록 그 감화력이 큰 법이다.

건설장에 울려퍼지는 이들의 노래는 항상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고 그들을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는 밑거름이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녀맹원들은 기업소의 부업지농사도 자진하여 맡아 알심있게 지었다. 어떤 때는 남자들도 힘겨워하는 일감을 자진하여 맡아 해제끼였고 성의껏 준비한 후방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하였다.

녀성들의 몸으로 이렇게 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웠다. 어제날에는 보조적역할을 수행하던 그들이 지금은 맡겨진 일감을 기능공들 못지 않게 척척 해제끼는 건설장의 보배들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이곳 녀맹원들은 일솜씨가 깐지고 길싸며 승벽심은 더욱 간단치 않다. 보통때에는 온순하고 말이 없다가도 일단 일감을 맡아안으면 장정들도 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장식공시때만 보아도 그렇다.

누가 시킨 사람은 없지만 이들은 공사장에 실어온 돌들을 크기별로 선별하여 건설자들에게 보장해주군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어떤 때에는 한 구간의 장식공사까지를 스스로 맡아나서기도 하였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건설자들 누구나 머리를 기웃거리였었다.

하지만 이들은 아름찬 작업과제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경쟁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모두를 놀래웠다.

작업속도는 물론이고 질보장도 나무랄데가 없었던것이다. 녀맹원들의 이런 승벽심은 단위들호상간의 말없는 경쟁으로, 놀아가는 공사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 순절한 량심을 바쳐가는 자랑스러운 대오, 이곳 녀맹원들이 걸어온 헌신의 자욱을 여기에 다 담을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녀맹원들이 바쳐온 날과 땀들에서 애국을 삶의 가장 큰 보람과 락으로 여기는 이들의 아름다운 인간미를 어렴지 않게 느낄수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들의 수수한 작업복차림이 도시의 화려한 옷차림보다 돋보였고 그들의 땀젖은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오늘도 이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인 간석지건설전투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후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나날에 어머니는 무엇을 했는가고 묻는 자식들에게 조국의 대지를 뚫혀가는 투쟁에서 한몫했다고 떳떳한 대답을 주고 싶다는것이 이들의 소박한 마음이다.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안석간석지건설장에서는 혁신적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충 일

인도네시아대사관 독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인도네시아독립 73돐에 즈음하여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이 2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동지, 외무성 부상 최철룡동지, 조선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일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밤방 히엔드라스또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죠꼬 위도도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인도네시아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자강도공급탄광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의 로동계급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고있다.

탄광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단계별 과학기술목표를 주도세밀하게 세우는 한편 4.15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도록 하였다.

2갱의 탄부들은 버력적재기를 비롯한 막장설비들을 받아들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1갱의 탄부들은 사슬콘베아를 개조함으로써 생산성을 2배로 끌어올리였으며 운반갱에서도 증기—공기복합식용선로를 새로 설치하여 필요한 전차, 탄차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경질합금열처리공정을 확립하여 정비리의 수명을 늘이였다.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이 앞선 말과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과학기술성과자료집에 비낀 창조의 열정

문수봉화피복공장에서

우리는 얼마전 3중모범기술혁신단위의 영예를 지닌 문수봉화피복공장을 찾았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공장, 올해에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공장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도 마냥 즐거워졌다.

아직은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공장이 이렇게 비약의 숨결로 높뛰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디에서나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지배인 김영태동무는 솔직하면서도 부피두터운 한권의 책무터 내놓는 것이였다.

생산단위로서 말을수 있는 영예칭호를 거의다 달아안은 자랑많은 공장의 지배인이 우리에게 내놓는 책은 과연 무엇을 담고있을가.

이런 의문과 호기심을 안고 책표지에 눈길을 돌리니 《과학기술성과자료집》이라는 글발이 우리의 심금을 쿵— 울려주었다.

공장이 걸어온 기술발전의 자랑찬 행로가 한눈에 안겨오는 과학기술성과자료집.

그것을 한장, 두장 번져갈수록 종업원들속에서 나온 소박한 합리화안, 창의고안을 그 어떤 영예보다 귀중히 여기며 아끼고 내세우고싶어하는 이곳 일군들의 웅심깊은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우리는 성과자료집을 가득 채운 가공합리화안,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의 생활력과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한시바삐 보고싶은 충동에 이끌려 그들의 입터로 걸음을 옮기였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이른 곳은 기술준비실이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고있는 이곳에서는 새 제품가공에 리용할 여러가지 형판지구들에 대한 설계와 제작이 한창이였다.

기술준비원들의 능란한 작업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지배인 김영태동무는 단순해보이는 이 형판지구의 도입이 제품생산에서는 물론 기술혁신에 대한 종업원들의 관점과 립장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지난시기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성은 높았지만 생산성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고 한다.

고급기능공들이 적은 공장실정에서도 제품의 질과 함께 생산성을 다같이 끌어올릴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한 4.15기술혁신돌격대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였다. 그 과정에 공장에서는 기능급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기능공들도 고급기능공들만이 수행할수 있었던 어렵고 복잡한 기술공정들을 대신할수 있게 하는 형판지구가 새롭게 창안도입되게 되였다.

간단한 형판지구의 도입으로 제품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이 몇배로 높아지게 되니 짧짧 놀란것은 고급기능공들만이 아니였다.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착상에 기초한 기술혁신의 놀라운 생활력은 공장종업원들에게 지금까지 어렵게만 생각하여온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새겨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산현장을 돌아보았다.

돌아볼수록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공장의 놀라운 현실과 이를 위하여 애써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노력이 선히 안겨왔다.

기술혁신의 생활력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체득한 종업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의 일군들은 그들의 기술기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기술학습이 작업반별로, 기능급수별로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이렇게 나온 새로운 착상들을 적극 받아들여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이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지게 되니 공장의 기술발전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고 한다.

단능생산설비들과 지구들을 자체로 만들어 끊임없이 확보해나가고있다는 이야기, 현존설비들을 전문화된 설비들로 개조하여 생산에 도입하고있다는 이야기, 자체로 생산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는 이야기…

만나는 종업원들마다 기술혁신이 정말 좋다고, 우리자신이 기술혁신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로동이 그대로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였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이곳 종업원들의 피타는 사색과 탐구의 열정이 그대로 슴배여있는 과학기술보급실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창조된 성과들에 대한 긍지높은 설명도 들을수 있었다.

생산공정호름선감시체계의 도입, 옷가공호름선에서 보조적지구를 리용한 두바늘재봉기의 활용을 비롯하여 제품별에 따르는 수많은 가공합리화안들과 생산용지구의 창안도입, 로동조건개선을 위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 공장을 대표하는 새 제품들의 개발…

정말이지 공장에서 이룩되고있는 기술혁신안과 가공합리화안, 창의고안들이 너무도 많아 과학기술성과자료집에 미처 다 담을수 없었다는 일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문수봉화피복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한번 확신하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거세찬 물결속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 때 과학기술의 위력은 최대로 발휘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철웅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

청진시 송평구역 룡호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얼마전 우리는 청진시 송평구역 룡호남새전문협동농장이 대용연유를 리용하여 영농작업에서 큰 력을 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파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하여 농기계들을 마음먹은대로 가동시키고있다는 소식도 흐뭇하였지만 자체의 힘으로 그러한 생산기지를 꾸려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룡호리에 다달으니 이곳 농장일군들이 단갑게 우리를 맞이하였다. 말하지 않아도 찾아온 사연을 알겠다는 듯 빙그레 웃음지으며 그들은 아담한 대용연유생산기지로 우리를 이끌었다.

겉보기에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생산공정에서 쉴새없이 대용연유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5월말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51t가량 되는 대용연유를 뽑았다고 한다. 그렇게 생산한 대용연유를 가지고 농장의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원만히 가동시킨다는것이였다.

지난 시기 긴장한 연유사정으로 애를 먹던 입이 언제나싶다며 얼굴에 시종 싱글벙글 웃음을 띠우고있는 일군들을 보니 우리 마음도 흐뭇해졌다.

이런 보배로운 생산기지가 꾸려지게 된 사연을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지난 3월말이였다고 한다. 어느날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이 길주군에 파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 아바이가 있는데 농장일군들이 찾아가 그 기술을 배워오라고 과업을 주었다고 한다. 즉시에 관리위원장과 리당위원장, 기계화분조장이 길주군을 향해 떠났다.

파수지재생리용기술을 연구하는 그 아바이는 기술력량과 공무기지가 그쯘한 공장도 아닌 크지 않은 협동농장의 힘으로 대용연유생산을 해보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머리를 저었다고 한다.

하지만 농장의 일군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긴장한 영농사업들이 기다리고있었지만 며칠씩이나 바쳐가며 진정을 터놓는 이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에 감복되여 아바이의 마음이 끝내 움직이였다.

그 아바이는 자기에게 기술을 배워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단위의 책임일군들이 모두 찾아와 제 집안일을 풀기 위해 애쓰듯 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오래동안 연구한 생산방법을 원리적으로 해설해주었다. 그후에는 이곳 농장까지 수백리길을 찾아와 생산공정의 설계는 물론 설비제작과 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농장에는 파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고 지금은 영농작업에 쓰고 남은 대용연유를 다른 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고 한다.

농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곳 일군들이 이미전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 많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흙보산알비료성형기, 소형이동식벼탈곡기, 논회전쟁면씨에치는기계 등 이 농장이 그쯘히 장비하고있는 농기계들은 지난 시기 진행된 여러 농기계전시회들을 돌아보고 농장의 기술자들이 자체로 제작한것이라고 한다. 구역당책임일군이 발기하고 과업을 주어 농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도로정토기는 지난해 도적인 보여주기사업까지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파수지에 의한 대용연유생산기지를 차려놓을 때에도 기계화분조장인 한철남동무는 물론이고 농장의 여러 기능공들이 큰 몫을 맡아해제꼈다고 하니 이 단위의 기술적잠재력은 정말 부러울 정도였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농장, 과학기술의 힘으로 날마다 흥해가는 이 농장의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기라고 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갈 때 어느 단위에서나 성과가 이룩되고 자랑이 넘쳐나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리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참된 주인들

리원군일군들

가정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리원군 룡지고급중학교를 찾았다.

지난 3월 새롭게 일떠선 교사는 이담하면서도 환하여 농촌학교라고 하지만 도시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 같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이곳 교육자들은 학교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감동깊이 들려주었다.

두해전 어느날이였다. 룡지협동농장에 지도사업을 나왔던 군당책임일군은 농장일군들에게 학교실태에 대해 물었다. 갓 임명되다보니 실태를 잘 모르고있었던것이였다.

당시 농장에는 소학교학생들을 위한 분교만 있었다. 그리고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농장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위치한 곡창고급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었다.

농장일군들의 이야기를 책임일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학교가 농장밖에 있으면 학생들이 불편해할것이다. 당에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책임일군은 농장에 학교를 지어줄것을 결심하였다.

이왕 새로 지을바에는 군적으로 제일 훌륭한 표준학교를 일떠세워주자고 하는 책임일군의 발기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학교를 하나 일떠세우는것만도 아름찬 일인데 본보기수준으로까지 올려세우자면 너무도 많은 품을 들여야 했던것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학교건설을 군에서 직접 틀어쥐고 해주기로 토론하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형성안작성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유능한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한 수십명의 건설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이런 준비끝에 지난해초부터 새 학교를 짓기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건설에서 제일 애로되는것은 세멘트문제를 해결하는것이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갈 결심을 굳힌 책임일군은 한때 세멘트생산을 하다가 고난의 시기에 주저앉아버린 건재공장의 실태를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상상했던것보다 조건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책임일군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과 마주앉아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을 거듭하고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열심히 배우기도 하면서 방도를 찾아내였으며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생산공정을 현대화하였다.

세멘트가 생산되자 군에서는 학교건설에 우선적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학교건설을 계획대로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군에서는 이와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에 필요한 여러대의 혼합기도 만들어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특히 책임일군들은 학교건설이 교육사업을 대하는 일군들의 낡은 관점과 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일군들모두가 군교육사업을 자기 고향땅의 미래를 가꾸는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였다.

로력이 많이 드는 기초공사와 층막공사에 군안의 많은 일군들이 총동원되여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먼길을 오가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실어오고 학교주변에 심을 나무모들을 얻어오는 등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이렇게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니 건설장은 언제나 흥성거렸고 건설속도는 점점 더 빨라져 지난해말에는 교사골조공사가 마무리되였다.

군에서는 학교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겨울에도 막막을 치고 온도보장을 하면서 내부미장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실마다 수지창문들과 멋진 출입문들도 달아주었다. 이곳 일군들은 군안의 어느 한 공장의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생산한 여러가지 색갈의 질좋은 외장재를 공사에 리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 필요한 수백조의 책걸상과 교탁들, 각종 액틀들도 가구공장에서 생산보장하도록 하였다.

책임일군들이 교사건설과 함께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학교의 교원진영을 그쯘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이였다.

새 학교인것만큼 첫걸음부터 잘 떼도록 학교일군들을 능력있는 교육자들로 선발하고 우수한 교원들을 배치하였다.

지난 4월 훌륭하게 일떠선 학교에서 새 학년도 개학식이 진행되였다.

자식들을 앞세우고 학교에 왔던 학부형들은 모두 눈굽을 적시였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뜨거운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격정의 물목을 터쳐놓았던것이다.

그날 저녁 도로에 차를 멈추어세우고 불빛이 환한 새 교사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당위원장을 비롯한 군일군들이였다.

이 학교 교육자들의 감동어린 이야기를 듣고난 우리는 리원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을 만나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룡지고급중학교에 대한 자랑을 터놓는것이 아니라 군에서의 학교건설사업은 이제야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군안의 모든 학교들을 그렇게 일신시키자고 한다는것이였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교육사업의 참된 주인이 되여 당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이곳 일군들의 뜨거운 진심을 알게 되니 과학교육의 래일 올해에는 물론 앞으로 리원군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명훈

불같은 헌신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가는 첨단돌파전의 기수들

중앙과학기술보급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연구사들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이곳 일군들로부터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1년도 넘는 기간 공장에 달려나와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스스로 맡아 풀어주고있는 중앙과학기술보급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충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생산과 공정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기술자료들을 해결해주고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체계를 보다 완비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 10여건의 새 기술을 도입하고 수백점의 설비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정상화에 적극 기여, 해당 부문의 설계가들을 도와 새로 건설되는 생산건물과 설비들의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게 함으로써 생산공정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기여…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자료들이였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감심하게 되는것은 당에서 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렵고 힘든 탐구의 길을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꿋꿋이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하나의 허점도 없이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깨끗한 량심, 오늘의 연구성과는 하나하나가 다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자신만만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이곳 연구사들의 과학적신념과 배짱이였다.

지난해 6월 중앙과학기술보급국의 아래단위 일군들인 서봉선, 김주일동무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속에 새로 일떠선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당의 의도에 맞게 더 잘 꾸리는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밤낮도록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새로 건설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이 이들을 몹시 흥분시켰던것이다.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이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다.

이날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의 현대화사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문제, 유능한 연구사들로 강력한 연구력량을 무어 현지에 파견하는 문제, 현대화와 새 제품개발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보장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현지로 떠나는 박학경실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앞에서 서봉선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과학과 기술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것이 바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전초병들인 우리들의 사명과 임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당이 바라는 높이라는것을 명심합시다.》

연구사들은 누가 과업을 주길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현대화의 의미를 깊이 인식시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지 현실에서 온을 내도록 적극 도와주는것이 연구집단이 내세운 목표인 동시에 연구사업에서 삼은 철칙이였다.

이들이 처음으로 진행한것은 생산현장의 위생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는 문제였다.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던 연구사들은 치약생산현장에서 원료투입과정에 일부 원료들이 미세한 가루가 되여 루실되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얼핏 보기에는 잘 알리지조차 않고 생산에도 크게 지장을 주는 문제가 아니였지만 연구사들은 이 현상을 그렇게만 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적문제이기 전에 현대화에 대한 관점과 립장문제였고 더구나 당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로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여 이들은 지체없이 원료투입공정설계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들어갔다.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연구사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끝끝내 생산공정설계를 다시 합리적으로 완성하고야말았다.

뿐만아니라 정수생산공정의 오존발생기도 다시 천만히 개조하여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치약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 치약압송뽐프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치약압송뽐프가 자주 고장나 애로를 느끼고있었지만 이렇다할 대책이 없었다. 설비구조가 복잡하고 한번 수리하는데 드는 품이 적지 않은것으로 하여 일부 사람들속에서 수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학경실장은 주저없이 이 문제를 맡아나서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당시 진행중에 있던 사업들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새 제품개발과 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필요한 홈페지를 개설하는 문제, 여러가지 설비들의 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번역하는 문제 등 많은 사업들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의 현대화사업이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원만히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이들이였기에 물러설수가 없었다.

박학경실장의 절절한 목소리가 연구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렸다.

《현대화사업은 단순히 과학기술문제가 아니라 악랄한 제재와 봉쇄로 우리의 앞을 막아나서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흔들린다면 어떻게 우리 시대 청년과학자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습니까.》

연구집단은 주야전투에 진입했다. 시간을 쟁취하는데서 에비를 찾았던것이다.

낮에는 낮대로 로동자들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설비들의 성능에 대한 파악을 했고 밤에는 필요한 문헌작업과 설계를 진행했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지혜를 합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하나하나 뚫고나갔다.

이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 성공의 믿거름이 되여준것은 중앙과학기술보급국의 일군들이였다.

연구사업에서 순간이라도 동요하고 주저앉을세라 수시로 찾아와 힘과 용기를 주며 때로는 새로운 연구종자도 안겨주고 착상의 실마리도 풀어주면서 걸음걸음 이끌어준것이 다름아닌 서봉선소장을 비롯한 중앙과학기술보급국 아래단위 일군들이였다.

한번은 현대화에 필요한 많은 과학기술자료들과 첨단설비들을 안고 또다시 현장을 찾아온 서봉선소장이 연구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그가 사업상용무로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갔을 때였다.

그때 텔레비존으로 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된 우리 나라의 어느 한 공장에 대한 전람물이 방영되더라는것이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두고 외국인들이 저저마다 찬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소장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그때 온 세계가 공인하고 우러르는 주체조국의 과학전사들이 영예와 긍지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다고 하면서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를 압도하는 현대화, 우리의것, 우리의 두뇌로 창조한 우리 식의 현대화, 이것은 곧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며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길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과학자의 량심으로 걷는 애국의 길이다. 이 길에서 우리의 지혜와 열정을 짜그리 다 바쳐나가자. …

이런 각오와 배짱으로 투쟁하였기에 이들은 단 며칠동안에 치약압송뽐프를 개조하여 생산정상화를 보장하였고 1회용치약주입봉합기에 대한 설계도 끝내고 제작까지 완성하여 제련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새로 건설되는 생산건물과 친정운반로보트를 비롯한 여러종의 설비들에 대한 설계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국산화비중을 무조건 보장하는것은 이들의 심장속에 암반처럼 자리잡은 의지였다.

그때 새로 건설되는 치솔직장공정설계에 있는 부족점을 밝혀낸 이들은 그 누가 임무는 주지 않았지만 공정을 무인화하고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릴수 있게 해당 부문의 설계가들을 도와나섰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주체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함에 대한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실현해나갈 신념으로 심장을 끓이며 이들은 피타는 노력을 바쳐 많은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의 생산구조가 완비된 세계적수준의 생산건물로 되도록 설계를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의 국산화방침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려는 이들의 투철한 각오와 혁신적인 일본새가 드디여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던것이다.

하기에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이처럼 진실한 연구사들이 있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안아올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했다.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에서 바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온넋을 바쳐가는 이런 미더운 첨단돌파전의 기수들이 있어 9월의 대축전장에로 향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자랑찬 승리의 소식들이 련이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민

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신 불멸의 업적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승승장구할 때에나, 시련을 겪을 때에나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변색을 모르고 시대의 기관차가 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진보적인류는 랭전종식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졌을 때 위기에 빠진 세계사회주의운동을 구원하고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시킨 조선로동당의 거대한 공적을 지금도 추억하고있으며 길이길이 전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추동하였습니다.》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 붓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과 혁명, 조국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주, 사회주의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당은 인류의 자주위업,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운명도 함께 걸머지고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에 의해 여러 나라들에서 총소리 한방 울려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일어났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서 일어난 혼란상태를 기화로 하여 침략과 압살의 예봉을 우리 공화국에 돌리면서 사회주의의 《종말》이 력사의 필연인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하였다. 참으로 엄혹한 시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그 진리성과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실천적으로 확증하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사상리론적으로 명확히 밝혔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자 세계사회주의운동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사회주의좌절현상은 왜 나타났으며 진정한 리상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놓고 갑론을박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자본주의야말로 《인류의 리상사회》, 《사회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설교하였다.

어느 진보적정당이나 정치가, 리론가도 력사의 반동들이 떠벌이는 궤변에 된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오직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원쑤들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시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심어주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90년대초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스웨덴에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대표단, 브라질10월8일혁명운동대표단, 멕시꼬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 대표단들과 당수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과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는데 대하여 철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이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우월하며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로 된다는것, 그리한 사회주의는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철의 진리로 밝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의 영상에 먹칠을 하며 압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좌절이라는 력사의 돌풍에 휘말려들어 산산이 흩어져가던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당들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기치가 바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이다. 우리 당의 주동적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적당들이 들고나갈 공동의 투쟁강령이 마련되였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일시적인 혼란상태를 극복낼수 있었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대오의 조직적결속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계속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랭전종식후 조선반도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드는 저들의 궤변을 과학인것처럼 분칠해보려고 하였다.

조선은 사회주의의 보루였고 정의의 성새였다. 조선의 힘이자 사회주의의 힘이였고 정의의 힘이였다. 크지 않은 조선과 방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은 말그대로 정의와 부정의간의 힘의 대결이였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지고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전쟁의 먹장구름이 자주 드리워지군 하였다. 봉쇄와 압력, 제재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우리 인민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그런 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였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나아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적들의 침략적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고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그토록 준엄하고 간고하였던 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불멸할 력사적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가고계신다.

대담하고 통이 큰 결단과 특출한 외교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있다.

존엄하면서도 성스러운 투쟁과정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세계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민들이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김 경 철

세기적인 기적들을 창조해온 승리의 력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우간다, 나이제리아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엄적토론회,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력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세기적인 기적들을 창조해온 승리의 력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렬한 책동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나라, 어려운 속에서도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뿐이다.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영웅조선의 현실을 소개선전하는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간직하고있는 우리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우간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건국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한편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14일 로씨야 다게스딴주 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에서는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공적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세계유일무이한 청년강국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단장 격정 토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청년운동사적판을 찬란한 최인아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단장이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청년운동사적판은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의의있는 곳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조국을 전도양양한 청년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총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따뜻한 손길아래 조국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사회의 골치거리, 우환거리로 버림받고있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내세워주며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받들고있다.

하기에 조국의 열혈청춘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위용떨치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신 조국의 청년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청춘이라는 부름이 기적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청년이라는 이 름으로 빛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제일 많은 나라,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세계유일무이의 청년강국이다.

청년강국이라는 이 위대한 부름과 함께 우리 재일조선청년들은 사나운 이역의 광풍을 이겨내며 총련애국위업의 계승자, 동포사회의 주력군으로 자라나고있다. 동포청년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민족의 얼을 지켜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해외료포청년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조국청년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청년운동의 새 기상, 새 모습을 창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력사적선언

오늘 조선반도에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과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긴장완화와 평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통일에로 향한 천정세흐름을 계속 추동해나가자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다그쳐야 한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넓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이미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확증되였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리정표이다.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문제 등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은 현실에서 그 정당성이 립증되고있다.

최근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단일팀으로 출전한것은 판문점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또 하나의 과시로 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도 실현할수 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은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리행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판문점선언의 리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인사들도 주변환경때문에 판문점선언리행을 주저하면 자신들이 앞장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단체들은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는 북남경제협력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패거리들은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느니, 《시기상조》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운운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기대하지 말라는 반통일적망발을 늘어놓았다.

한편 미국은 우리와의 《비범적인 거래》라는것을 구실로 내대며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였다.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우리 겨레의 단죄규탄을 면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남조선단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 반대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24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국방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전 《정권》이 강력한 반대여론을 무시한채 체결하였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3각군사동맹실현을 위한것으로서 판문점선언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일본《자위대》를 군사협력의 동맹자로 인정할뿐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종교인들

《보안법》폐지를 요구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불교사회개혁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 구성된 종교인협의회가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폐지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남북경제협력에 나섰던 한 기업가를 구속하였다고 말하였다.

인민혁명당사건과 같이 보수《정권》의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보안법》을 통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결코 잊을수 없다고 그들은 절규하였다.

그들은 선량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는 《보안법》에 대해 더 심각하게 론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화해와 평화에로 향한 지금이야말로 그 악법이 폐지되여야 할 때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세월》호참사관련단체들

기무사령부를 고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가 22일 서울의 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불법사찰한 기무사령부를 직권람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기무사령부가 《세월》호참사이후 비밀조직을 내오고 피해자유가족들을 불법사찰한 사실이 국방부특별수사단의 조사과정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무사령부는 《세월》호가 인양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희생자들을 수장하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단체들은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패륜적범죄를 저지른 기무사령부의 만행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기무사령부에 대한 강제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들은 고발장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또다시 드러낸 보수패당의 추악한 대결본색

지난 22일 남조선의 《인권위원회》 위원장내정자가 《국회》인사청문담변서에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인권위원회》 위원장내정자의 전해는 현 남북관계개선분위기에 부합되는 옳은 처사이다고 평하고있다.

반면에 보수패거리들은 《인권위원회》 위원장내정자를 《좌파》로 몰아가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위원장내정자가 《인권기관의 최고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정치인이 아닌 인권위원회 위원장내정자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느냐.》, 《인권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한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사대매국과 반통일정책, 반인민적악정으로 력사의 버림을 받은 보수패거리들의 골통속에는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반공화국대결의식이 박혀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반제투쟁속에서 굳건해지는 친선관계

오늘은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의 친선관계발전력사에서 의의깊은 날이다.

1960년 8월 29일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지난 58년간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여왔다.

조선과 꾸바 두 나라간의 친선관계는 반제자주, 사회주의의 기치밑에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맺어진 불패의 친선관계, 영원한 전우관계이다. 두 나라 인민들은 어렵고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우리 인민은 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끊임없이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군사적위협, 경제봉쇄와 파괴암해책동을 혁명적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길음마다 짓부셔버리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해온 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여왔다. 꾸바인민도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제재속에서 주호의 동요나 굴함이 없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표시하여왔다.

오늘 꾸바인민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지난 4월 아바나에서 진행된 제9기 꾸바인민주권민족회의 구성회의에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선거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는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계승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새 헙법기관에는 자본주의복귀를 제창하는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으며 오직 사회주의를 계속해나가려는 사람들만 있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꾸바가 나아갈 유일한 길은 모두가 단결하여 1959년에 혁명승리를 이룩한 혁명의 1세들의 투쟁업적을 반드시 이어나가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적들의 악랄한 봉쇄와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변함없이 전진하려는 꾸바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꾸바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결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이 장성하고 인민생활이 향상되고있다.

꾸바는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해양에네르기개발노력이 주목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해상풍력과 바다물온도차를 리용한 발전능력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이미 전국적인 풍력자원분포도작성사업이 완성되고 100개의 바람탑측소건설이 추진되고있으며 바다물겉층과 깊은 층의 온도차이에 의거하여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7개의 종점해역을 확정하고 시험적인 전력생산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다.

꾸바정부는 관광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빌라 클라라주 앞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을 서로 이어놓고 본토와 련결하기 위해 40여개 다리와 48㎞의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꾸바는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도미니카와 경제, 사회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는가 하면 인디아와 생물공학과 보건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과 광해작서를 체결하였다.

꾸바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자주적이고 부흥하는 사회주의꾸바를 건설하기 위한 이 나라 당과 인민의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적원칙과 동지적의리에 기초한 꾸바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본사기자 림 원

불법비법의 날조문서—《한일합병조약》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 때로부터 108년이 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간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불법비법의 문서이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웠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고 조선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특히 일제는 서울에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1910년 7월 우두머리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낼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어든 조선《통감》데라우찌는 조선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의 전권대표임명권한까지 가로챘다.

친일역적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해내고 그에 비준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기어이 《조약》을 강압체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그해 8월 22일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냈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형범죄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억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

그러나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발표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이처럼 일제강도무리들이 날조해낸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불법비법의 문서날조사실을 숨기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은 실로 헤아릴수 없다.

수많은 청장년들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이역땅에 끌려가 모진 학대와 천대, 멸시를 받으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고 총알받이로 내몰려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겼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들과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과쇼폭압통치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일본은 이 모든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오히려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이 과거청산을 성근하게 하는것은 단순히 그 어떤 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문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감돌고있는 정화기류에 역행하여 일본반동들이 부리는 군국주의적광기는 도를 넘어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고 군사력을 아심적으로 키워오고있다. 헌행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전범자의 후예인 현 수상 아베가 앞장에 서서 날뛰고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댈것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똑바로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심각한 이산화탄소방출문제

노르웨이에서 지난해에 5 240만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방출되였다. 그것은 1990년대에 비해 2.4% 늘어난것으로 된다. 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가공부문과 제조업, 광업부문에서 이산화탄소방출량이 많았다고 한다. 15일 노르웨이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해안오염문제

이딸리아에서 해안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3일 이 나라의 한 환경연구단체가 해안지역들의 260여곳에 대한 수질분석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거의 절반이 쓰레기와 오수에 의해 오염되여있었다.

수집된 약 5만개의 쓰레기들중 80%가 수지오물이였다고 한다. 특히 강과 운하가 바다와 합쳐지는 지역들에서 오염실태가 더욱 한심하다고 한다.

먹는물오염으로 많은 환자 발생

이라크의 바스라주에서 최근 오염된 물을 마신 약 500명의 주민이 설사와 배아픔 등을 호소하면 곧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당국은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약품을 제공하였다. 4월초에 쌀라호딘주에서도 600여명의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37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분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